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 행정위원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15일)는 행정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전교인 야외예배 안내
6월 2일(주일)에 전교인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 불철 대심방 안내
불철 대심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일예배	친 교	안 내
5/12		행정위원	교회	한순자
5/19	송 섭	최태신	교회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말씀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

기도제목: 1. 하나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2.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대로 아래에서 들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3.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과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장 1-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 자녀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뜻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순종을 설명할 하면 '행포 아쿠어라'는 단어입니다. '행포=아래에서, 아쿠어=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위에서 대충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용돈을 보내 드리고 만 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선적인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겸손하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기에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왜? 이것을 지키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에게 주신 말씀

4절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외로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버지! 그리고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속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자녀에게 이런 저런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이미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기억이 난다면 빨리 만나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 때 미안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할 때는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사과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을 잘 표현하시나요? 여보 미안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 됩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들으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끼리 그런 사과와 용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

지난 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죄인된 심정이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동안 잘 해 주 못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언제나 필요한 것은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 속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서로 서로 표현하는 것에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언제나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행사안내

봄철 대 심방 진행
 5월 12일 아버지 주일
 15일(수) - 행정위원 헌신예배
 6월 2일(주일) - 전교인 야외예배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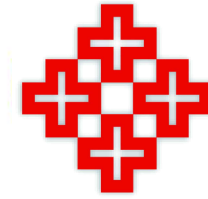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9년 5월 12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말씀: 정요한 목사 행정위원 헌신예배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2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2번(아버지 주일)	
찬 송 Hymn	305장	토요 새벽기도회 요한1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기 도(Prayer)	배한우 장로	
성 경 Scripture	에베소서 6장 1~4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말씀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30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